

# 與, '다주택자' 김조원 수석 비판 봇물

우원식 "다주택 처분 지시에 불만 느꼈다면 부적절"  
이석현 "물러났다고 집에서 해방 아냐...바로 팔아야"  
진성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마무리 깔끔하지 못해"

강남 다주택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교체되자 여당에서 참았던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김 전 수석을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강남 집 한 채는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수석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비난이 커질 것 같다'는 의견에 "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주택

관련) 비판은 그 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 논란이 증폭된 것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한데 보도대로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가 그런 것(다주택 처분 지시)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면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며 "그래서 나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다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쓰이는가에 대해 불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재직했던 민주당 한 의원은 "다주택을 해소하지는 비서실 전체의 의견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자격도 윤리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김조원 전 수석과 김겨성 전 수석은 물러났다고 해서 집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바로 집을 팔아야 한다"며 "안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직책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한 게 옳은 말이 된다. 물러났어도 집은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그만두는데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청와대가 보통 자리냐"면서 "대통령 측근, 참모라는 자리의 명예나 영예가 그만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졌는데 그런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김 전 수석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단체 채팅방도 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뒀 모습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 의원은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가는데 그 자리에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 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소병철 의원, 주암 장성교 재가설 공사비 특별교부세 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소병철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은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장성교 재가설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성교는 1977년 준공되어 올해

로 43년이 된 노후교량으로, 바닥판에 철근이 노출되고 균열이 심해 차량이 통행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의 재가설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던 교량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순천지역의 폭우 피해를 둘러보며 장성교를 방문했었다.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벗겨져 있어

언제 붕괴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장성교 재가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새롭게 태어난 장성교는 주민 누구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노영민, 20평 반포 아파트 팔았다...차익 8억5000만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달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용 45.7㎡(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지난달 24일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0평 매물과 같은 평형인데다 거래 날짜가 같아 노 실장의 매도 매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매매는 11억3000만원에 이뤄졌는데 이는 같은 면적의 역대 최고가와 같은 가격이다. 전용 42.7㎡ 매물은 지난달 6일 9층 매물이 11억3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월 부부 공동명의로 2억 8000만원에 구매했다. 약 8억 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1일 노 실장의 거래 사실을 묻는 질문에 "최고가에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직전 매매가가 같은 가격"이라며 "노 실장의 경우 매매한 부동산이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침수 피해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 통합당 1박2일 구례 봉사활동 호남민심 잡기...100여명 동원

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희용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조선의원, 보좌진, 당원 등 100여 명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 일대 침수현장과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당일 자원봉사자 40여 명과 복구 작업에 나서고 정 위원장을 비롯한 강민국·권명호·김승수·김은혜·김형동·양금희·유상범·윤희숙·이용·전봉민·전주혜·조수진·최형두·

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등은 보좌진, 시·구의원, 당원 등과 함께 한다.

통합당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은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10일에도 구례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피해가 큰 호남 지역을 연일 방문해 복구 활동을 펼침으로써 수해로 성난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세비 30%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김종인, 오는 19일 광주 5·18 묘지 방문

호남 향한 메시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당이 지나칠 정도로 호남 지역에 대해 크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이 새롭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호남 민심을 파악하고 호남 사람들이 통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앞으로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 대해 통합당의

여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호남 민심을 끌어안는 통합을 주제로 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최근 당의 핵심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새 정강·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5·18 민주화운동 부분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정신에 따라 초안 전문에 담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